

聖句

보는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
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
는자는 또한 형제를 사
랑할지니라

(28174 : 20)

獨逸統一에 聲援連發

「**동양**」이란 말은 「**동쪽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중국**」과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동양**」이란 말은 「**동쪽의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양의 문화**」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동양의 문화**」란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양의 문화**」란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문제에 대하여는 엄정한 태도를 보이며 강경하던 그를 서부독일에 대하여 이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의문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워림이 하였던 독일 통일 문제가 서독 아데나우어상의 정치를 발원하여에 따라 무원통

李三會談。難議連逢
理解讓步。留三兩側主張

아메리카 부흥 고관들은
신론에 주재하는 우방국 외
사절단에 대하여 이슬람 대
이 휴전을 할까 하도 설득
고 있는 일은 절망적인 정
는 아니라」는 통전언락을
라고 한다.

西日本大水災에우는
우리 동포를救濟하자

西日本大水災에우는
우리同胞를救濟하자

이번 서일본 지방에 대흥수
로 인하여 六十여년만에 처음
되는 대수해를 당하여 일본정
부에서는 즉시 국무대신을 보
내며 국회에서는 명시에 갈리
고 대립되는 각 정당이 대단
결을 하여 크게 구제운동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
을 전개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바이다.

이제 우리는 구주지방에 거
주하는 동포가 많이 있으니
이역에서 갖은 천대를 받으며
가혹이나 고생하는 동포들이
철상가상의 재앙을 당하여 거

쳐를 일으키고 의복과 친구를 잃
고 울고있다는 정경은 눈물겹
이 생각할수없다 특히 우리동
포의 참혹한 경상을 생각하여
동포여러분과 각교의 교우와
특히 최임자 여러분에게 호소
하는바이다.

대개 이땅에는 일정시대로
부터 그 차별적 악정과 경제
적 압박으로 생활이 곤난하여
살길을 찾아서 스스로 건너온
이도 있거니와 전쟁시대에 감
제정용으로 끌려온 동포가 많
이 있으며 구주지방에는 본국
과 거리가 가깝고 공정이 많

은 관계로 특히 우리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종전의 군수공임이 폐지됨을 따라서 대개 실직자가 되었으나 일제정부는 자기 국민도 다 돌아보지 못하는 형편에 아도리 자기들에게 취임이 었다 할지라도 외국인인 우리 동포까지를 불려유가 였다.

일본사람은 정부의 조치와 사회실서가 정도됨을 따라서 주택과 의식생활과 그밖에 각 방면으로 국민으로서 입는 특전이 많이 없었마는 그 혜택이 우리 동포에게 미이기를 기대할수 없을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겨우 산곡이나 천변에

나라크를 의지하고 겨우 그들의 잔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를 이 대부분인데 이제 몇몇에 이변 수해를 당하니 의지했던 나라크조차 물에 떠나 버렸고 여간 있는 의복이며 천구나 그릇과 남비조가리를 잃어버리고 어떤 동포는 생활을 의지하고 있는 도야지까지 잃어버리고 당장 몸부친대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도리가 막혀 호전망극하여 울고있는 정경이라고 한다.

채류일반 고평은 저 서일본 한모퉁이에 있는 동포들의 이 사정을 아는가 모르는가 저를 아예 따뜻한 구호의 손을 펴자! 누구나 일본당국이 구제

은물과 함께 어느정도 형식적 구호를 발견치마는 당시에도 이부자식같은 천대와 판도를 만든 형편에 이런 위급함을 경유에 어찌 공평한 대우를 바라라 더욱이 설교 눈물겨운 일이 많을것은 피치못할 일이다.

이제 우리는 평소애 동포회를 표방하고 사랑을 부르짖는 신자와 교회에 대하여 호소하노니 같이 해외에서 살다가 이렇듯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어찌 소식이 없이 잠잠하고 있느냐. 이러한 재난을 당하여 위급한 경우에 돌아보는것이 동포의 의의요 또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이리하여 나서



英國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데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이 사실인가 상임의 목적이 담. 한국에는 재산이 약간의 선교사의 재산이 약간의 있는 외에 미국사람이 투자한 것은 없다. 一八八二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은것이 서양사들과 처음 된 조약인데 그 결과로 철도와 전차와 금광을 미국인이 맡아서 개발시켰으나 一九一〇년이후로 모든것이 일본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일본은 동경을 독점한것이 아니라

休戰成立은疑問 韓國軍의行動이注目

李, 로희담의 중심은 한미방위협정에 있었으리라고 뉴욕에서 外電이 전하는데 한국측은 공산군 침략에 대한 전면적 방위협정을 휴전조약체결 전에 하라고 아메리카에 요청하였기 때문에 로희담은 한국측의 의견을 타진한 정도 귀국하고 텔레스국무장관 급에서 본사가 다시 올것이 아닌가 본사가 그러나 한편 클락장군은 「한국측의 동의 없어도 휴전조약을 하자 한국측이 휴전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산측에 편지를 보낸것이 문제

「내가 주필때에 먹을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입히지 아니하였다니」 저주를 받은 자라고 회하고 「지금 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것이라」하신 예수의 말씀 잘 아는 신자는 이때에 정신차려서 이제 동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 하느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자 이제라도 급히 재지에 위문사절을 보내고 의복과 친구등과 구제금을 성의를 다하여 모아 보내자.



李桓信牧師 Y 世界大會 參席次出發

신 (李桓信) 목사는 서서 「제네바」시에서 七月十五로 三일까지 열리는 YMOA 세계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난 七月四日 부산을 떠나서 당시에 잠시 들렀다가 바로 대북으로 향하였는데 씨는 「하네단」에 출영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내에 들어가서 몇날 묵으면서 여러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분을 찾아보고 싶으나 사정상 바로 가려져서 딱히 만만합니다. 이번엔 내가 참석하게 된 대회는 역시 제네바에서 세계六十여개국대표가 모이는데 대회에서 주로 토의될 사건은 一九五五년에 모이게 될 세계 YMOA 五十年 기념 파티

한가지로 잘못될것이 없는 일인줄입니다. 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위하기 위하여는 그 리를 치기보다 차라리 머리를 칠 필요가 있지않은가 만일 만주가 유엔을 상대로 싸우는 데 중공군의 근거지라면 그것 을 그냥 두어서 전쟁을 끌어가도록 하는것은 도의적으로도 불가한 일인줄입니다. 만주의 공군기지를 폭격하는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쟁을 확대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유가 약하다 침략자는 자기네 힘이 성공하기에 충분하다는 자신이 있을때에는 언제든지 터져나온다. 저들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다.

군사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공산측을 위하여 한국군대와 싸워야 할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될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共和당 스미쓰의원도 그와 같은 의견을 표시하였다 한다.

여하간 한국측의 휴전반대의 도를 올바루 이해 못한 국면 속에 있어서 용이한 해결책은 당분간 있을것 같지 아니하다

대회에 대한 준비와 세계구제사업금 재건사업에 대한 Y의 사업계획과 이에따르는 재정문제 등입니다.

이번대회에서는 八개 그룹의 분과회가 있게되었는데 나는 둘째 그룹의 지도자로 피택이 되었고 플랜드와 스칼랜드 등 대표도 나와같이 한 그룹을 지도하게되었고 에밀 뿌른너 교수가 주요한 지도자가 되어 전체적으로 지도하게되었습니다 대회를 마친뒤에는 유람으로 로마를 경유하여 서독까지 다녀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Y 총무 림버트씨와 스트롬씨 중심으로 모이는 회수회에도 가급적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八月十日로 二十일까지 서서국보 세이시에서 모이는 세계기독교 연합회에도 참석하겠습니다. 그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Y 당국을 방문하고 Y 사업시찰을 마친다음에 구월十五日 경 귀국할 예정입니다.



○유명한 애국자요 본시 감리교 중 국선교사로 일해 오신데

○스복사역 歸國中喪配하시 且來日、東京第一空襲留宿

○田永福牧師(京都教會牧師) 東京地區 伝道集會引導次 三日來東

○李桓信總務(韓國Y聯合會總務) Y世界理事會參席次 渡歐次 七月四日 하네다發

에서 육사하신 손정도목사의 아드님인 손원일씨가 해군총참모장으로 많은 공적을 세운 것은 세인이 아는 바이지만 이번에 국방장관이 되었다고 전한다. 국사다난한 이때에 오직 선민의 애국지성과 굳은 신앙을 가지고 그 깨끗한 양심적 인격을 본받아 험하게 싸워가고 특히 깨끗한 양심의 육군을 만장기를 바란다.

○본국에서 온 어떤 대학생의 편지에 「조국이 위기에 직면하여 더 험악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몸을 바쳐 일선에 나갔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동안에는 아모조목 도피하려는 놈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정신이 어떻게 된것이 눈물겨울도록 고맙다.

○이땅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때에 제 생활이 조금이라도 사치나 안일에 빠질가바 두렵습니다 더욱 반성을 해서 싸우는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고 「저이 표회서는 벌써 세주일째 나라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계속합니다.」이것은 본국서 온 편지의 일절 본국과 해외에서 모두 이렇게만 열성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앞에 희망이 있을것이다

東京教會集會盛況

七日間決心者二十六名

東京교회에서는 총회 신도들 十七名이 모이던 곳에 새가운동교회에 따라 지난날 二로 八名이 회수를 맡기로 작정하였다. 집회를 끝마친 후는 직원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 각 전도소는 장성하고 東京교회에 전도활동의 열정이 불타게 된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신자를 얻었는데 한주간의 집니다.」하였다.

장사로 총회장 조기선목사를(大阪北部教會)청하고 교회원들이 활약하여 二十六명의 새신자를 얻었는데 한주간의 집니다.」하였다.

二十四五일은 평소에 약三명의 신도가 모이는 다마가와 전도소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새로 회수를 맡기로 결심하신 교포 八명이 있었다.

二十六七일은 東京에서 한시간쯤 시외에 떠나서 있는 船橋전도소를 중심으로 전도하였는데 새 신자 세분을 맞이하였다. 그곳 전도소에는 평소 약 二十名씩 모인다.

二十八日 주일은 東京교회에서 조용한 예배를 지켰는데 특히 요코쓰카에 와 있는 한국교회 十名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七名을 학습교인으로 세우는 예식이 있었다.

二十九日, 三十일은 西新井전도소에서 집회하면서 東京교회 十여명이 동원되어 교포부락을 가정방문 하면서 전도하고 집회 안배를 한 결과 평

한국의교회총회는 제三十八회 총회를 전후하여 그 동향이 주목되었바 분립총회가 생겼다 한다. 상세한 사실은 알수없으나 기독교장로회 二一호에 의하면 「현장교회 총회에서 이말하러는 조선교회에서는 얼마전부터 총회소집준비를 하여오던바

大韓長老會總會分裂

統一을 앞둔三八總會

六月十日 서울 城南교회에서 회집 되었다.」하며 또 二三四호에 의하면 「조선계의 세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하며 조선계의 총회는 조선교포장로회會長 金世烈 副會長 權奎植 書記 李善귀 副書記 丁丁태

逆境에서 苦闘하신

李楨烈 總務 勇退

재일본 한국기독교장로회(YMOA) 총무 이정렬장로는 작간 수고 하시었다. 지난날 七개년은 우리민족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과정으로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문화사회면에 있어서는 비약적인 혁신 발전의 터를 견고히 할 때였다. 더욱이 기독교운동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여명이 있었다. 그러나 재일본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受難期였고 이정렬장로는 그 수난기의 한관을 혼자 지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이정렬의 고충을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는 언제

나보다 늦은이 갈지 않은 김태영장로와 신도들의 열성으로 방 집회에 약六十名 정도 참석하였다. 이곳 부인회는 三十六명의 회원이 있었다. 회장의 할아버지 모도 열성적이었다. 제二日에는 호명방도를 하고

西南地方傳道旅行記(下)

豐橋教會傳道師 鄭景희

부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부인회를 위하여 잠깐 권면을 하는 시간이 귀하였다. 방에는 六十五명이나 참석하여 성향을 이루었다. 이종성목사의 활동하던 이야기로 나서 줄거는 회상담도 있었다.

六月十日 오전 十一時에 三次 회합하였다. 이곳은 원자

北九州水 僑胞·教會

北九州에 이러한 수재는 六十여년만에 처음 이러한 대재였다는데 일반 피해는 불라문 숫자에 달하였다. 우리 교회는 北九州에 이러한 수재가 있었으나 일본사람들에게서 한 국어를 살피려는 여유있는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나중에는 본국 Y 연합회에 원조를 청하였으나 그 역시 현해탄을 건너서까지 도라를 여유는 당분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기에 입신할 여유없는 틈에 끼워 그럭저럭 여유없는 틈을 지냈는데 월급 한 번도 올바루 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한때는 자비를 하시고 이 번에 다시 이러나지 못할 정도에 있었으나 Y의 혁신적 발전을 위하여 Y는 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용회하신것인 데 Y의 입생에 있어서도 Y 총무시대 보다 더한 곤란은 다시 없으시기를 비려 마지 아니한다. (一)

三次 教會

三次 회합에 부임하신 한영주 장로는 부임후 무탈간에 교회 장로는 부임후 무탈간에 교회

꽃이가지 못하였다. 이날 밤 집 회에도 약二十名이 모여서 단 순한 복을신앙중예 밤이 깊 어져 가는것도 모르고 열심으 로 돌리니 집회가 끝난후에 우리들러 오는 음력 정월초순 에 다시 와서 사경공부(查經 工夫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 였다. 우리는 그 교회 신도들 의 열성에는 감격하였는데. 부인 회회원은 十一명이었는데 학 심한 소망중에서 살겠다는 그 들의 열정은 꾸밈없는 말들을 에서 넉넉히 알을수 있었다.

이번 순회전도집회는 간곳마 다 밤에 몽았으나 낮에 분방 하게 지나시는 동포들이 피곤 함도 개이치 않으시고 출석하 는 것과 지방교회 교역자들이

村에서는 우리동포 네호(四戶 가 화제를 당하였다기에 약간 한 구제물자를 가지고 위문을 갔다. 왔읍니다. 五月二十四日에 는 우리교회 부인회가 조직되 었읍니다. 미력이나마 부르심에 정성껏 섬겨 보려 하오니 신 도들의 지도를 부탁합니다.

災甚大 曾被害도不少

총회 서남지방교회에도 적지않 은 피해가 있는데 후쿠오까 (福岡)교회는 二又에 사는 교우 여섯가정이 침수를 당하 고 기타는 겨우 재난을 면하 였다 한다.

시모노제끼(下關)교회는 폭 우로 회당에 비물이 새었다는 데 그속에 모여 지도를 드렸 다 한다. 동교회 최장로는 오 리오교회집회에 가신후 연락이 없어 걱정하였다 한다.

고쿠라(小倉)교회도 피해중 심지에 있었으나 다행히 과한 피해는 없었다 한다. 그외의 오리오와 사가 三小野田등 은 연락이 없다.

구마모토(熊本)교회에 대하 여는 七月一日부의 안영준목사 의 통신을 접한즉 이미 예배 당 건축공사를 시작한 기지에 손해가 막대하며 교우중에 죽 은이는 없으나 집이 유실된이 가 몇집되고 의복과 침구를

집회를 위하여 원근을 불려하 고 찾아 다니면서 집회안내를 하는 것은 성경에 이른바 「목 마른 사슴」과 「힘한 곳에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는 말씀은 사실로 볼수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과 부 꾸러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 고 참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흐터진 이 양들을 위하여 목자를 보내주소서」할수 밖에 없었고 「이미 세우신 당신의 종들에게 계으름이 없도록 우 로부터 당신이 격려하시옵고 감당할 능력을」하여 주소신 하고 지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반성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부인 전도회연합회에 감사하면서 이 여행기를 마친다.

전부 일어서 생활에 말미 아 니다 양돈하는 도나지 수십마 리를 잃어 생활곤난이 막심하 리 신자중에 수십일을 휴을 파내도 못다 파낼정도 있다고 한다. 예배당은 우선 약 二十 만원을 들여 기초공사부터 다 시 하여야 될터인데 이런 수 해중 때우 걱정이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 의 도우심과 각처 에있는 여러 교우들의 협력을 바란다고 한다. 끝으로 이번 에 각교회에서 여러분의 많은 도 움과 사랑을 받는것을 충심으 로 감사하는 뜻을 표한다고 하였다.

西日本同胞水害救濟金品

本社에서募金 서일본의 수해로 참혹 한 정경가운데 있는 우 리 동포를 위하여 동정 을 표시하려는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에서는 의류와 구제 금을 모집하는 사무를 취급하기로 하였사오니 각지방에 계신 독자들은 시급히 의복이나 구제금 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면 구제금품이 모이는대로 현지에서 있는 교회와 연락하고 사람을 특파하여 전달하겠사오 니 그리마시고 다소간 성의를 다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福音新聞社

(新約)講解

默示錄

求道者

一本書의特質 本書는 예수그리 스도께서 제림전후에 되어질 오묘한 일들을 계시하여 기 록하계한 것이다.

二本書의形式 本書는 신약성경 중 가장 특이한 묵시문학형 식으로 기록된 책으로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적인 표현 을 한것이 많이 보인다. 따 라서 이 내용과 형식 이해 를 하려면 다른 묵시문학을 아울러 읽어야 할것이다.

三本書의目的 주제는 이 묵시 를 기록하게한 목적은 그당 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장대한 로마 권력하에서 박해를 받 고 한편 화려한 문화에 유혹되어져 가고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에 굳게세워 그리스도인 의 최후승리를 얻을것을 예 언한 것이다.

四本書의著者 記録場所와年代 이 책을 기록한자는 예로부 터 사도요한이 라고 한것이 다 사도요한은 로마 도이시 안황제 시대에 밋모섬에 유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 과 문제로 보아서도 사도요 한의 글같다. 장소는 밋모섬 이 아니면 예베소였으리라그 하는데 때는 기원九十三년에 서 九十六년 경이라 한다

五本書의解題 이 책은 환상을 표징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구구한 부분 해석은 여러가 지 해석이 있으나 대체적으 로 세가지로 해석하는것이다 첫째는 四장이하를 미래에 두고 해석하는것이고 둘째는 과거와 미래에 걸쳐있고 역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셋째는 사도요한시대에 국한 된것이라고 하여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는 이 세가지 해석법 전 부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원리를 배울것 이며 그 완전한 실현은 세 마작막날에 두고 나아가 아 할것이다.

六本書의概觀 이 책은 서두의 一章과 마작막二十二章六절이 하를 제외하면 크게 두 부분 으로 나눌수 있다 제일부는 二章三章인데 그속에는 七교 회에 보낸편지이다. 그것은 오 늘의 전세계 각시대의 각이 한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대표한 것으로 본다 제二부 는 四章에서 二十二章五절까 지의 부분인데 장차 이루어 질 하나님의 묵시의 장면이 그 속에서 전개 되어 있다

七本書의解題方法 이 책을 읽게 이해할려면 이 책의 주제와 삽화(挿話)를 구별하는것이 첫째이다. 이 책의 주제는 「상 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이 상 권력과 문화에 대한 심판인 데(太八九十一五十六 十七 十八二十 二十二)그 마작막은 심판신자가 실현 되는 것으로 마친다.

삽화에 속하는 부분은 심판 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우어지는 것을 보여주는것 이다(四五 七十一上十二 十三 十四 十九)이 두 부 분을 구별하여 읽고 또 다 시 합쳐 놓고 보면 한포기 이렇듯 높은 장대한 것이하 여 읽을때에 분명하게 이해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八數字의象徵的意義 묵시문학 의 특징의 하나는 숫자인데 이 해에도 숫자가 많다 그 의의는 一은 절대대성 二는 중인 三은 신령수 四는 지 상적 七은 완전성을 표시한 다. 十은 인간적완전 十二는 三과四를 승한 선민관계 숫 자고 千은다수 六은 사탄의 관계다. 숫자는 이렇게 감추 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九本書의內容分界

一 머리말	一章
二 七교회의 편지	二 三章
三 금후의 일들	四 一 二 五
四 하날위의 영광	四 五章
五 二 일곱 인봉	六 一 一 八 五
六 三 일곱 나팔	八 六 一 一 一
七 장래의심판	十二 一 一 四
八 일곱 금대접	十五 一 一 六
九 심판	十七 一 一 八
十 하나님의나라	十九 一 一 二 五
四附要言	二二 六 一 二

어떤 용인을 얻어오는 것이었
다. 그런데 다시와 보족 그
들은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 땅에 떨어진 이상한
용인을 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 용인을 가지고 못가
으로 가서 같은 용을 보고
들어왔다. 나는 하나님께
것을 믿지 아니했으나 이렇게
자은 동물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용을 예비해서
원수를 막게 하는 것을 보면 분
명히 하나님께서 신것을 알
았다.

그 친구는 생물학자라 그
점은 특수한 냄새가 있는 것인
데 파충류 동물이 그 냄새를
맡으면 마취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
였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너무도
신기한 것이 많고 보면 결국
처음부터 누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을 믿지 아니할 수 없다
구약성경 욥기에 하나님께서
산골재기에서 우는 가마귀
새끼도 돌보신다고 한 것은 이
것을 말한 것이다.

리빙스톤이 아무리카 오지로
다니다가 한번은 어떤 산중에
서 길을 잃어서 오래 헤매다
가 기진맥진하여 어떤 바위를
의지하고 쉬다가 바위틈에 작
은 풀이 파랑게 돌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풀도
보고

그리스도신도 여러본은 인테리
친구가 있으면 이 영화감을
한번쯤 권고하면 좋은 전도가
될것을 의심치 않는다. 분과기
술(分科技術)만 발달된 오늘
에 이같은 종합예술을 감상한
다는것은 의의가 없지않을것이
다 할수만 있으면 두번이나
혹은 세번쯤 보면 좋으리라.
(羅)

살리시는데 당신의 종을 돌아 얻어서 다시 목적지를 찾아갔
다. 보시지 아니하시라 하고 기운을 다하고 한다.

論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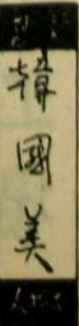
基督教와 貧富問題

牧師 嚴堯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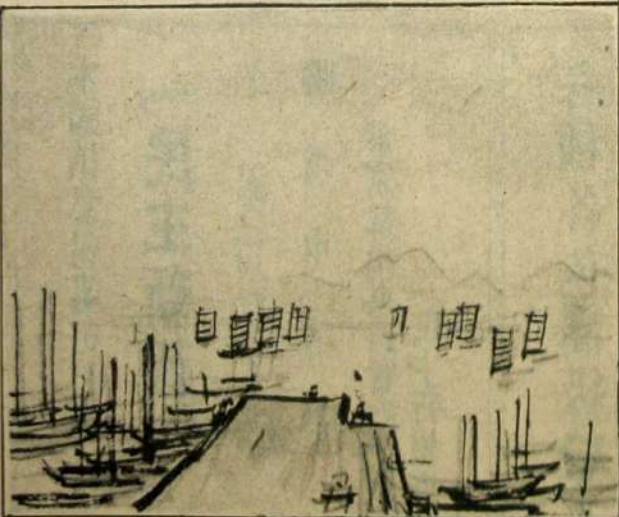
(三)

一 또한 과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과학만 발달하면 되면 생산
이 넘쳐나고 지면 교통도 편하
여져서 이곳에 많은 물건을
물건이 없는 저곳으로 운반하여
서로서로 유족하게 살면 빈부
문제는 자연 해결된다고 생
각한다. 물론 과학이 발달
되어 에도막 에너지의 농업화
사키며 기타 모든 공업면에
사용하면 물가도 좀 싸지고
생활의 안정이 현재보다 더
나을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 일은 그때를 당해보아야
알수 있을것이나 현대 과학만으
로는 불완전해서 현대의 사회
고민이 지속된다고 말할 사람
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결국 생리적인 것으로 정신적으
로 불구자가 됨으로서 빈한한
생활을 하게되는 부류의 사람
들을 위해서 건전한 사람들
이 저들의 불행함을 함께 나누
어지고 함께 살수밖에 없다
특히 구약예언서에는 파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말
이 많이 기록되었다. 사회안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것은
나의 몸 어느 한곳이 아픔을
가지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
정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교
훈이며 사상이다. 이런 관례로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사업이란
기독교를 통하여 생기기어졌고
또 一九五〇년 六月二十五일 공
산천락이 시작됨으로 생기기어진
불행한 고아사업 기타 사회사
업의 75%가 기독교인의 손으로
운영이 되고있는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사회제도
에 관한 기독교의 입장은 무
엇인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확한 성경의 교훈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하다고
그 인간을 천히 여기고 부하
다고 그 인간을 높이시지는
않으셨다. 유명한 거지 나사로
와 부자의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아는바이다. 결국 나사로는

이미 지옥안대로 부자나 빈자
자를 말함으로 가난하였던 사
람만이 살고 부하였던 사람을
발음 벗겨 들켜말에 내어 쫓
는 사회는 아니다. 우리는 하
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을
지을날이 인간역사에 나타날것
을 믿는다. 혼돈가운데서 우
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재물의 불공평한
분배를 그리고 부한자들만이
배를 불러우고 갖은 행악을
다 하는 사회적 불의를 그대
로 묵인하지 않으실것이다. 예
수님께서 부자청년에게 네게
있는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게 주라(마태 19/21)하신 예
수님의 교훈은 결론코 그대
그 청년에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신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그 뜻은 이 땅에도 이루어지
실것이다. "기독교독본"에서 전제



韓國美



鴨綠江
작은 것으로는
개진다. 그러나
의주(義州)를
지나서 하류에서
는 평야도 좌우
에 보이며 신의
주를 중심한 강
구(江口)까지의
풍경은 과연 큰
강물같은 감흥이
적지 아니하다.
덕유하 신의주와
중국안동현과의
좌우의 경치는
한부로 지나칠수
없는 것이다.

共產主義者の新平和運動

指導에對한老練

제임스 이 첫시어博士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그 자신 이 평화애호자들이며 또한 그들의 모든 외교적 혹은 정치 적 처사는 평화를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수차례 걸쳐서 그들의 평화적의도가 의심스러우면서도 또한 희망있는듯이 세계에 인 상을 주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여왔다. 一九二一年이나 一九四一年 로시아가 나치스독일을 쳐부시기 위하여 민주진영의 원조를 필요로 하였을 때, 크레무린은 자본주의 제국에게 자본 주의와 공산주의가 상호간에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진 노력과 성의를 나타내었다. 당시 나치 스독일이 마치 로시아를 쳐서 스탈린제국이 종말을 고하게 되었을 때, 크레무린은 민주진영의 우호관계를 얻지 않으면 안될 만 큼 되었던 것이다. 그를 공산 주의자는 교회를 재개하기까지 하였으며, 로시아 전지역에 걸쳐서 종교의 부흥까지 허락하였다. 민주주의 제국간에는 로시아가 오랫동안 우정을 가지고 진실 으로 우리 민주주의 진영과 같이 히틀러의 나치스주의 또한 못 소리니의 독재적 국가 사회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에 대항하여 싸워온 것을 기뻐하였 다. 그 당시에는 소련의 지도자 들이 독일과 이테리 또한 일 본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편을 따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며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 할 것이다. 정말 어름과 같이 차디차고 냉정한 인간들이 었다. 소련과 그 위성 국가 군의 공산주의자들은 한편, 교활하게 도 전후에 어떻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 제국가의 손실과 파멸 을 초래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하면서, 그들 자신을 방위 하는 데 민주주의 제국가의 자금 이나 병기나 또한 우리들의 군인의 인명까지도 사용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또 다시 소련을 상대로 평화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련이 평화를 부르짖을 때에는 언제나 우리들은 거기에 그들의 자신의 이익이나 또한 전략상 이유가 있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경 우에 있어서 세계정세를 정확히 이해가 있는가, 분명히 알 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첫째 로 한국전쟁은 이미 三년간이

나 끌어왔으며,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로시아는 지금 국제연합 군의 공군의 힘으로 수백만 말라의 가치가 되는 군사시설과 물자가 파괴되고 있다. 그 이상 더 건널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화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 며 또한 민주주의의 근본 성격 에 있어서 우리들은 철의 장 막 속에서 나오는 평화론에 대 하여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이 평화회담이 과거 에 그들이 써온 것이나 다를 게 없는 하나의 전략상 술책이라

는 것과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 에 있어서, 그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이 진실로 평화에 대하여 희망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심할 여 지가 없다. 공산주의론에는 그 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재일전 전지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 는 것을 교묘한 정치외교적 수단으로서, 결국의 승리를 바 라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제국들 은 그들의 허위선전에 속지 않 고 잔인한 전술을 면하려 하면 현재 그들이 가지는 모든 행 동에 대하여 비상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古詩調鑑賞

時節

李明漢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九萬

꽃. 좋은 시절이 돌아와
 花. 好 時 節 來 了
 註。田園一詩(농촌)

아하야 대 비어 오너라
 秋風 吹來 涼意 爽
 註。田園一詩(농촌)

南

小説 새벽 종 (十九)

田榮澤 作

다들 쓰련이 지금 세계적인
장을 약화하려는 본의는 마른
코트 신장부가 침략적행동을
하기전에 먼저 그 기반을
튼
하게하기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하는 곳에있다 스탈린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스크바
의 공산당 최고기관의 내부에
불발 만만 철폐가 생기게되
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장차 침략적공세를 취하기전에
공산당의 재조직과 청산을 하
기위하여 시간적여유를 필요로
하여야된다는것은 면할수없는
사실이다

뜻. 시절이 돌아와 할
일이 많으니 일족
일어나서 한세 일하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麟平大君

세상 사람들이
입을만 성하여서
제 허를 전혀 잊고
남의 흉 보는고나
남의 흉 보거나 말고
제 허를 고치고저
뜻. 남의 흉 보지말고
제 허를이나 고쳐자

어라, 자... 파위에는 “食”의
뜻은 있지 아니하고 다만 줄
기에 붙어서 그 말의 쓰이는
관계와 범위를 밝히는 것입니
다. 이것은 나무의 줄기의 끝
에 붙는 잎과 같습니다. 그러
므로, 이것을 세말 (말의 끝,
語尾) 이라 합니다.

목동인 북에서 (9)
「윤선생! 어디 가세요」
이름날 저녁이었다. 태호는
전날저녁에 정장로의 집에서
영예를 기다리고 앉았다가 종
내와보고 집으로 와서 여기저
기 돌아보고 찾아보다못해 발
이길어져 주인공 없는 방에서
하로밤을 지내고 아침에도 다
시 혼자에도 연락해보고 찾
다못해 회현동 봉구의 집을
찾아가서 의논해보려고 한 농
림모를 꼭 불러쓰고 맨 발에
고구신발을 끌고 충무로 좁은
길로 스물 술 가는데 누가
자기를 찾는소리에 잠자 놀라
다. 여자의 목소리다. 언뜻 보
니 송혜련이다. 간단한 양장에
별로 화장도 아니했으니 그
분말시와 얼굴 표정은 역시
사람을 반기고 반하게 하는것
이 있었다. 어떻게 나를 알아
보았을까 하고 이상히 생각했
으나 꼭 맞아떨렸으니 할수없
이 상대할수 밖에 없다. 그러
나 무어라고 대답할 말이 생
각 안나서 혜련을 바라보고
멈춥 섰다.

「오라간만 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세요 제련
어울리는걸요 과연 경력자라
다르네요」
「무슨 경력자란 말이요」
「독립만세 생각안나세요 참
똥으셨군 캄대기만 노동자가
되면 돼요? 진짜 노동자가 돼
야 해요」
「내가 언제 노동자가 아니
가요 미스 송은 공연히 사람
을 가지고 그래!」
「흥 글썽요 그런데 어쩔 가
세요」
「용구한테 가보려구 나선 길
인데」
태호는 이렇게 사실을 말했
다. 그리고 발길을 내켜서 가
려고 하는 차에
「용구라니 민용구씨 말이야요
선생님 정신 없으신군 용구씨
가 그저 서울만에 계시잖

아세요 별저 몇날에 떠나셨지
그런 양반이 여기 그냥 계시
면 돼요? 선생님은 왜 어쩔
어쩔하고 계세요 선생님의
부르조아지는 재미있을건데」
「그럼요? 분명히 알구그려요」
「알구알구요 벌써二十六일
새벽에 미국 대사관차를 타고
종영상을 친 걸요 지금종은
벌써 바다를 건너서
저리쯤 가세요」
발길을 내켜서 가려고 하든
태호는 혜련에게 줄줄 풀려서
옛날 소화를 지내서 남산
쪽으로 향해 올라갔다.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서서 가면서 이
야기는 그냥 계속되었다.
「어째 가깝다는 친구가 그래
요 혼자만 다라나구」
용구생각을 하고 고개를 기
웃거리면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는 태호를 보고
혜련은 이렇게 화살을 던지자
태호는 화제를 돌렸다.
「나는 공장직공으로 일만하면
그만이지만 미스송이야말로 미
군과 관계가 깊고 그만하면
본시부터 부르조아이지 마야
그런데 이렇게 천연하게 할보
하구 다녀요」

「호호 호호 일만하면? 어디
선생님 손 좀 보시다 이 손
가지군 나제입니다 나요 내
영원 마세요 나같은거야 그 때
그 때 바람부는데루 불결 가는
대루 가면 그만이지요 내 웃
음 한번만 던지면 사내들은
팔경이구 노랑이구 문제가 있
어요 선생님도 이왕 못가셨으
니 무슨 급한일이 있거든 저
한테 찾아 오세요 저한테 머리
를 숙이세요 호호 호호」
태호는 혜련의 말이 그럴듯
도 해서 이 인물을 내세워서
명매의 간 곳을 알아볼까 해
서 그가 가는데로 따라서 어
딘집 뒷방으로 들어앉았다.
「시정하시지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세요」 하고 혜련은 자
신을 감춘다.

本國消息을速히전하는

『民主新報』를

읽으시오

購讀申請은

東京都中央區寶町二丁目二番地

民主新報東京支社

各種各色高級단추

製造卸賣商

優秀한原料와

精密한技術로製造하는단추工場

本山製釦工場

大阪府堺市西港二丁目一一五

電話堺 九九四番

活版・平版・製本印刷

河北印刷株式會社

京都市下京區唐橋門脇町28

電話 下(5) 9024・9025